

FIP-2009-0029 (통권 제148호, 2009. 11. 09)

한일 상장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 분석 및 시사점

ISSUE
PAPER

Contents

< 요약 >

I. 검토 배경	1
II. 조사 개요	2
III. 한일 상장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	3
1. 개 황	3
2. 국내 상장기업의 신규사업 추가 현황	6
3. 일본 상장기업의 신규사업 추가 현황	9
4. 한일 주요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	11
5. 한일 비교 : 한국은 녹색산업, 일본은 사업서비스업에 관심 ·	13
IV. 시사점	16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미래산업팀 김동현 선임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293 FAX : 6234-5292 E-mail : dan5733@fki.or.kr

● ● ● 요약 ● ● ●

- **(검토배경)** 국내 기업들이 새로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산업현황을 파악하고, 아울러 일본 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도 파악하여 한일 비교를 통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상장기업과 일본 상장기업의 정관상 신규 목적사업 추가 공시현황을 조사, 양국 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 분석

- **(한일 신사업 진출 현황)** 한국은 제조업과 녹색산업에, 일본은 서비스산업, 특히 사업서비스에 관심이 많음
 - * 한국은 '09년중 전체 761개 상장사 중 130개사가 신규 목적사업 추가
 - * 일본은 '09년중 전체 1,702개 상장사 중 143개사가 신규 목적사업 추가
 - 한국 상장기업이 추가한 신규사업은 제조업이 가장 많고(80개사), 이어 신재생에너지(38社), 도소매업(37社), 환경산업(36社)의 順으로 나타남
 - 일본 상장기업의 경우 사업서비스업을 가장 많이 추가하였고(69개사), 이어 제조업(55社), 금융보험업(38社), 도소매업(26社) 順으로 나타남
 - 한국에서 각광받는 신재생에너지나 환경산업의 경우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목적사업으로 추가되어 신규수요가 적은 것으로 파악
 - 일본에서 활발한 인력아웃소싱의 경우, 한국에서는 노사문화의 경직성과 시장규제로 고용서비스시장이 미성숙되어 신규 수요가 적음

- **(시사점)** 기업과 정부의 상호보완적 노력을 통해,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서비스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정부지원 확대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업은 R&D 투자 확대, 효율적 경영전략·기술체제 수립에 노력하고, 정부는 기반인프라 구축, 규제완화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효과 증대 도모
 -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관심 제고 및 투자 확대, 인력양성 촉진 필요

I. 검토 배경

- 선진기업들은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각국의 기술개발경쟁도 심화되고 있음
 - GE, 지멘스, 쉘 등의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의 기술 흐름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수종사업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축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선도적 지위를 구축하고자 노력 중임
 - 선진국들도 향후 10년 내외의 가까운 미래에 거대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이나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 국내 기업과 정부도 국가발전과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천명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및 녹색기술·첨단 융합·고부가가치 서비스업 등의 17개 신성장동력을 선정, 적극 육성하고 있음
 - 그 결과, 최근 환경·에너지, 헬스케어, 하이브리드카, LED, 바이오 분야 등이 자본시장과 기업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같은 국내외 환경하에서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파악하여 산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아울러 일본 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도 파악하여 한일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통상 정관상 신규 목적사업 추가는 그 사업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므로, 이를 통해 국내 기업과 일본 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을 분석하기로 함

Ⅱ. 조사 개요

- 한일 상장기업의 신사업진출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09년도 한국과 일본 상장기업들이 정관에 신규 목적사업으로 공시한 내용을 분석하여 비교함
 - 또한 한국의 경우 '08년도 공시내용을 추가로 분석하여, '09년도와 추이를 비교함

- 조사대상
 - 한국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중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 '08년 전체 699개 상장사 중 신규 목적사업 추가한 148개사
 - * '09년 전체 761개 상장사 중 신규 목적사업 추가한 130개사
 - 일본의 경우 도쿄 1부 상장기업 중 정기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 '09년 전체 1,702개 상장사 중 신규 목적사업 추가한 143개사

- 조사방법
 - 한국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한 공시자료 분석
 - 일본 : 금융청 공시시스템(EDINET)을 통한 공시자료 분석

- 조사내용
 - 한일 상장기업들이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추가한 신규 목적사업을 업종별로 분류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기업들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업종을 도출하고 한일간 비교분석을 실시함

Ⅲ. 한일 상장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

1. 개 황

- 상장기업 중 신규사업을 추가한 기업비중은 한국 17%, 일본 8%임
 - '09년 중 한국은 전체 761개 상장사 중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한 기업이 130개사로 전체 상장사 중 17%를 차지
 - * '08년중에는 전체 699개 상장사 중 148개사가 추가, 21% 비중 차지
 - '09년 중 일본은 전체 1,702개 상장사 중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한 기업이 143개사로 전체 상장사 중 8%를 차지
- 업종별로는 한국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종의 기업들이 신사업을 많이 추가하였고, 일본은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종의 기업들이 신사업을 많이 추가하였음
 - 한국은 제조업(76社), 건설업(17社), 도소매업(10社), 운수업(8社) 順, 일본은 제조업(39社), 도소매업(34社), 금융업(15社), 임대업(11社) 順

< 신규 목적사업을 추가한 기업의 업종별 분류(기업수) >

업종	제조	건설	도소매	운수	방송정 보통신 서비스	발전	보험 금융	부동산 임대	사업 서비스	여가교 육복지 서비스
한국('09)	76	17	10	8	6	3	-	-	8	1
한국('08)	87	19	15	3	7	4	3	-	5	4
일본('09)	39	7	34	9	11	3	15	11	9	5

- 우리 상장기업들이 신규로 추가된 목적사업은 자원개발사업, 신재생 에너지산업, 기계제조업, 부동산 개발업, 관광시설 운영업 등임

< 국내 기업의 신규 목적사업 예시 >

- 국내외 자원 및 수자원 개발·생산, 원유 및 천연가스의 탐사 채취·개발업
- 산업용 운반기계 제조, 화약류 제조, 식품류 제조, 회로소재부품 제조·판매업
-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개발 및 레저산업
- 토양정화업, 폐기물 수집·처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사업, 폐기물해양배출업
-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전지 모듈생산·판매업, 바이오디젤산업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음식점업, 주유소 운영업, 전시장 설치·운영업
- 광고대행업, 지재권 라이선스업, 교육서비스업, 지식인력개발사업
- 자동차 대여업, 고령자 간호서비스사업, 결혼상담업, 직업소개·알선업

□ 신규사업의 현황 파악 및 분석의 편이성을 위해 사업들을 해당 표준산업 분류에 따라 업종별로 분류키로 함

< 한일 신규 목적사업의 업종별 분류 >

업종	해당 사업 예시
농어업	식량작물 재배, 축산사육, 임산물 채취, 육림업, 어업, 양식업
광업	석탄, 가스, 원유, 철, 비철, 건설석재 등의 채굴사업
제조업	식음료품, 섬유, 의복, 석유, 석탄, 원유정제품, 가스, 유무기물, 플라스틱, 화장품, 의료물질, 의약품, 고무, 시멘트, 석재, 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통신장비, 의료·정밀·광학기기, 기계·장비, 자동차, 선박, 기자재, 항공기, 우주선, 조명, 가구, 귀금속 등 제조
전기·가스·수도 공급업	전기 송배전, 가스·증기·수도 제조 및 공급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공급, 설비 시공, 부품 제조, 컨설팅
환경산업*	환경정화·복원업(토양, 지하수 등), 친환경부품 제조 및 설비·시스템 구축, 환경컨설팅, 탄소배출권 거래사업 등
건설업	토목, 지반조성, 종합플랜트, 시설물, 시공업, 건설장비 운영사업
도·소매업	상품중개, 할인점, 백화점, 주유소, 충전소, 전자상거래사업 등
운수업	육상·파이프라인·수상·항공 운송, 보관창고업, 터미널운영 등
숙박·음식점업	호텔, 콘도, 주점, 프랜차이즈사업 등
출판·영상·방송·정보·통신서비스업	영화·방송·애니·오디오물 제작·배급, 영화관 운영, 지상파·라디오·유선·위성방송, SI, 소프트웨어제작, 출판업, 포탈, 호스팅 등
금융·보험업	은행, 보험, 카드, 금융지주, 저축은행, 랩어카운트, 컨설팅 등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개발·공급, 운송장비·자동차·가정용품·지재권 임대
사업서비스업	R&D, 회계, 법무, 세무, 시장조사, 지주회사, 광고, 경영컨설팅, 건축설계, 기술엔지니어링, 감리, 기술시험, 인테리어, 디자인, 매니지먼트, 고용알선, 인력공급, 여행, 신용조사, 시설관리, 경비 등
교육서비스업	학교, 학원, 방문학습, 온라인학습, 직업훈련 지원사업 등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보건업, 노인요양, 실버산업, 아동보육사업 등
여가 서비스업	골프장, 스키장, 테마파크, 창작예술, 공연시설운영, 박물관 운영 등
수리·개인서비스업	미용업, 예식장업, 세탁업 등

* 주 : 기본적으로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되,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환경산업은 별도 분류

□ 상기 분류에 따라, 한일 상장기업들이 정관에 추가한 신규사업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 이어서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 환경산업, 정보통신 서비스업 등의 추가가 많음

< 한일 상장기업의 신규 목적사업 추가 현황 비교(기업수) >

신규 추가 목적사업 (업종분류)	한국		일본
	2008년 신규추가 기업수	2009년 신규추가 기업수	2009년 신규추가 기업수
농어업	8	3	7
광업	21	12	4
제조업	97	80	55
식품 및 음료품	8	7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8	11	2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바이오 등)	7	8	7
전자부품, 영상기기, 컴퓨터, 통신장비	14	8	8
기타 기계 및 장비(농업기계, 승강기 등)	7	9	9
전기·가스·수도 공급업	9	12	3
신재생에너지산업	47	38	3
환경산업	27	36	21
건설업	47	25	9
도·소매업	41	37	26
운수업	12	9	13
숙박·음식점업	12	3	6
출판·영상·방송·정보·통신서비스업	39	22	25
금융·보험업	11	10	38
부동산·임대업	52	19	22
사업서비스업	47	24	69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회계, 법무, 컨설팅, 조사, 광고, 지주회사)	31	10	11
사업지원서비스 (보안, 문서작성, 총무, 여행업, 신용조사 등)	5	4	1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	3	4	7
고용알선, 인력공급, 인사컨설팅 등	-	1	26
교육서비스업	11	10	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	6	9
여가 서비스업	15	10	6
수리·개인서비스업	3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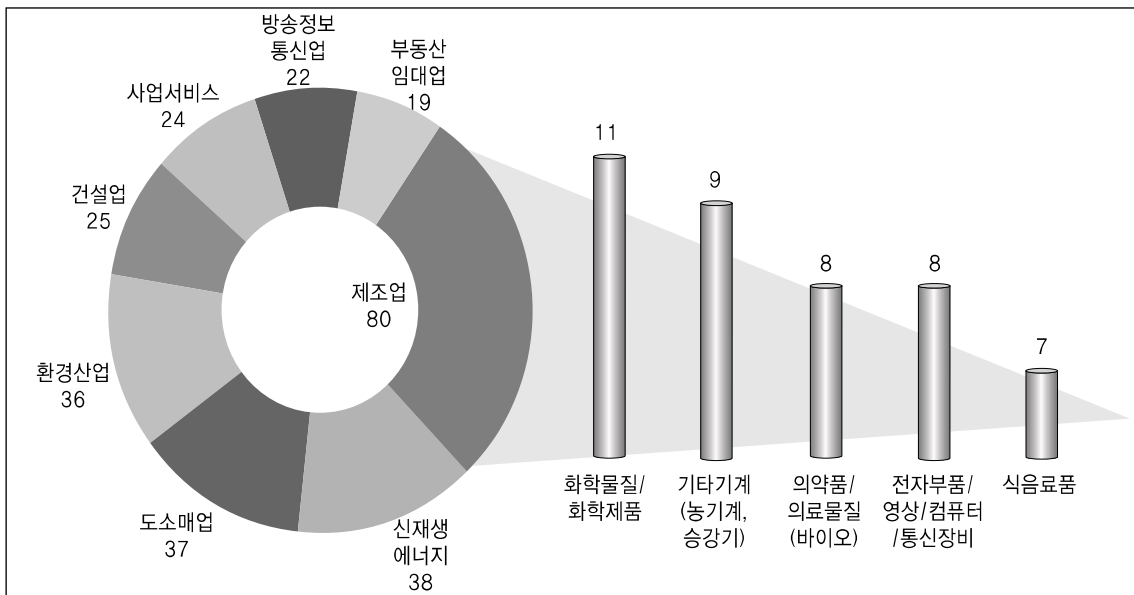
* 주 : 1) 한국의 경우 2008년에 148개사가 501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09년에는 130개사가 361개의 사업을 추가하였음

2) 일본의 경우 2009년에 143개사가 323개의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음

2. 국내 상장기업의 신규사업 추가 현황

- 한국 상장기업은 신규 사업으로 제조업을 가장 많이 추가하였고(80社), 신재생에너지(38社), 도소매업(37社), 환경산업(36社)順으로 추가
- 추가한 제조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를 추가한 기업이 많았고(11社), 농업기계, 내연기관, 절삭기, 승강기 등의 기타기계·장비 제조(9社), 의약품 제조(8社), 전자부품 제조(8社) 順으로 많았음

< 한국 상장기업의 신규 목적사업 추가 현황(기업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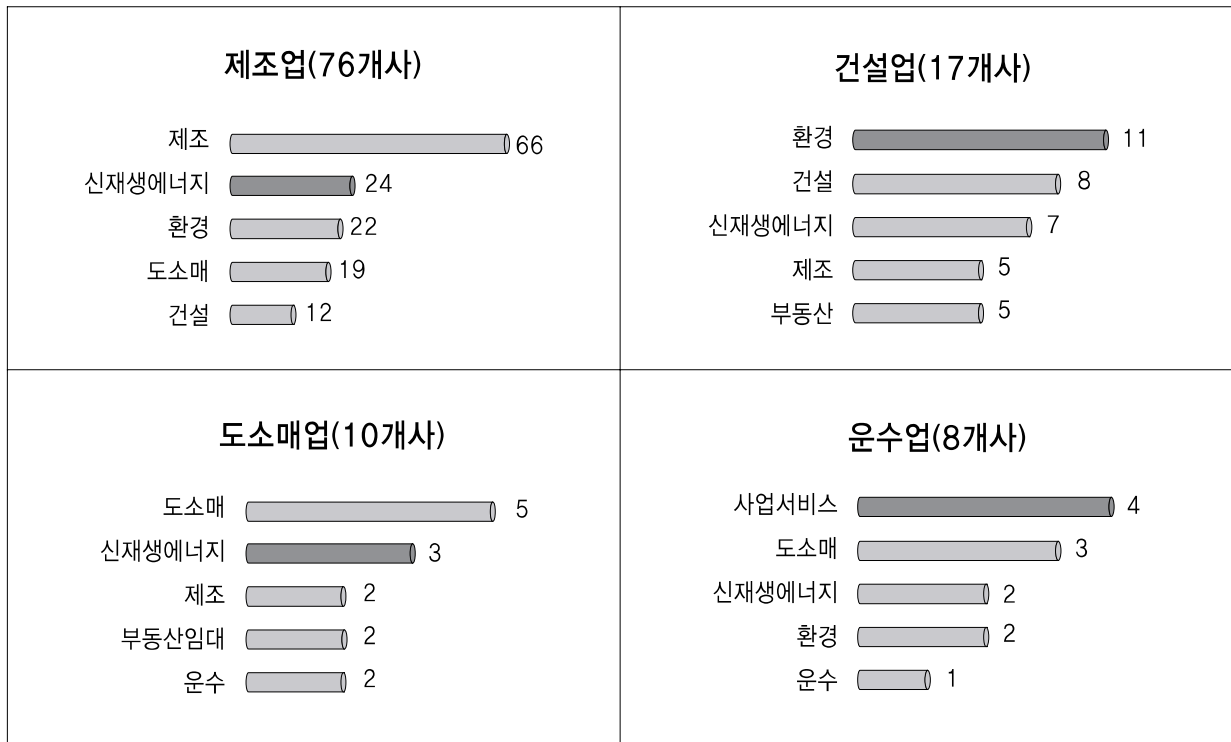
- 제조업 추가가 많은 것은, 국내 기업들이 기존 제조업의 유지·확장차원에서 제조업 관련 분야에 많이 진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아울러,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폐기물 처리, 환경재생, 온실가스감축 등 환경산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신재생에너지, 환경사업 추가 사례 >

- 두산중공업 : 풍력 등 추가, R&D센터, 해외원천기술(이산화탄소 포집) 투자 등 추진 중
- 한진해운 : 신재생에너지·환경사업 추가, 바이오메스업체(양돈분뇨처리) 지분 인수
- KT : 신재생에너지 추가, 전국 사업소를 활용, 태양광에너지 사업 계획 중

- 신규사업 추가기업들을 업종별로 나누어 특징을 살펴보면, 기존 업종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등에 대한 진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신규로 제조업(66社), 신재생에너지(24社), 환경산업(22社) 등을 추가하였고, 건설업종 기업은 환경산업(11社), 건설업(8社), 신재생에너지(7社) 산업을 추가한 기업들이 많았음
- 신재생에너지에 관심과 진출이 많은 것은 녹색산업에 대한 정부의 R&D지원 확대 및 기존 제조업이나 건설업종의 노하우를 활용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점, 고유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 신재생에너지 추가기업의 업종별 분포 : 제조업(63%), 건설업(15%), 도소매업(8%), 운수업(5%)
- 환경산업의 추가는 특히, 건설업종에서 활발한데, 이는 향후 5천만평 이상의 미군기지가 반환됨에 따라 이곳을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토지복원 공사에 대비하고 4대강 정비사업 등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임
- * 폐기물·환경복원 추가기업의 업종별 분포 : 건설업(62%), 제조업(23%), 운수업(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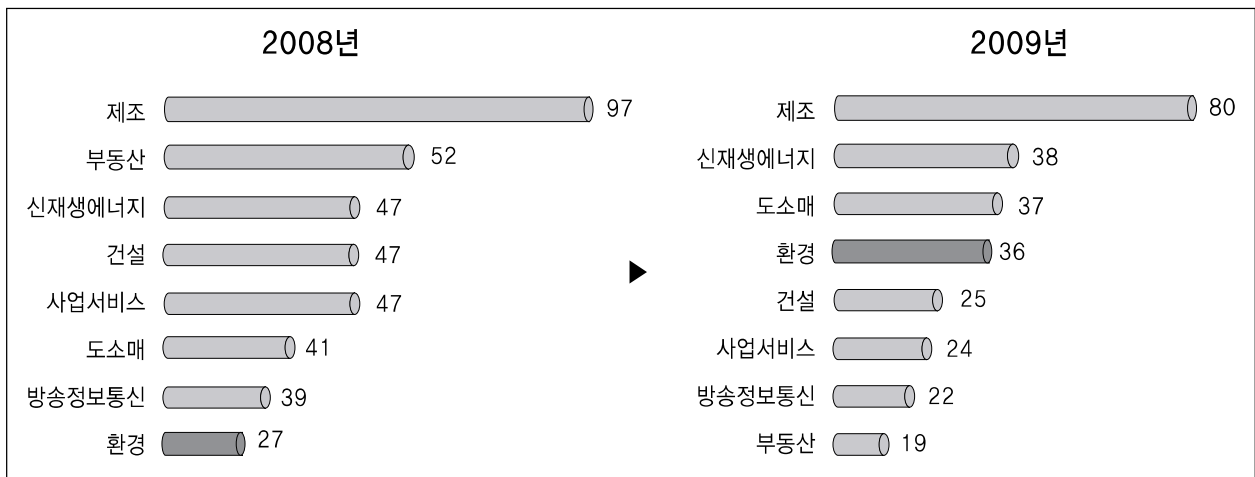
< 국내 기업의 업종별 신규사업 추가 현황('09년) >



* 주 : 1) 신규사업 추가 상장기업들을 업종별로 분류, 업종별 신규사업 추가 현황을 분석
 2) 1개 기업이 신규 목적사업을 다수 기재한 경우가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한편, '08년에도 신재생에너지산업(47社), 환경산업(27社)을 추가한 기업들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되어, 이 분야에 대한 상장기업들의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환경산업의 경우 '08년 27개사에서 '09년 36개사*로 증가해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논의와 함께 기업들의 환경산업에 대한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09년 환경산업 신규 추가 기업 : 한진(폐기물 처리), LG화학(탄소배출권 거래), CJ제일제당(폐기물처리), 영창실업(가죽제조업체)(탄소배출권 거래), 케이아이씨(플랜트전문제조업체)(전기집진설비 활용, 환경산업 진출 모색 중), 케이씨코트렐(환경전문업체)(환경컨설팅 추가) 등

< 한국 상장기업의 신규 사업 현황 연도별 비교(기업수) >



※ 참고로 전경련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신성장동력 관련 투자선호도 설문조사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1순위로 꼽혔으며, 환경관련 산업들도 많아, 이같은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임('09.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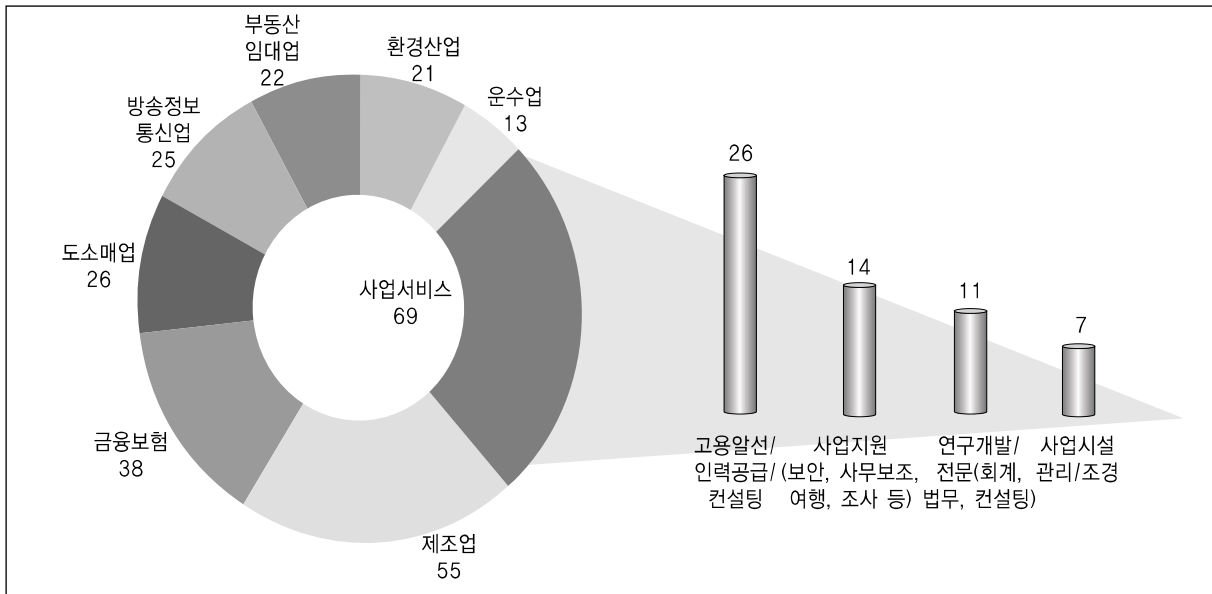
<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별 기업 투자선호 순위(복수응답) >

분야	순위	투자 희망 신성장동력	응답률
녹색기술산업	1	신재생에너지(박막에너지, 연료전지발전시스템)	33.6%
	2	첨단그린도시 (U-City)	22.4%
	3	고도 물처리 산업 (수처리 플랜트)	16.0%
	4	그린수송 시스템 (그린카, WISE선박)	12.0%
	5	탄소저감에너지 (차세대 신형원전)	10.4%
	6	LED 응용 (LED 조명)	5.6%

3. 일본 상장기업의 신규사업 추가 현황

- 일본 상장기업들의 신규 추가 사업 분포를 보면 사업서비스업(69社)이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55社), 금융보험업(38社), 도소매업(26社) 順으로 나타남
- 국내와 비슷하게 제조업을 신규 사업으로 정관에 추가한 기업이 많았으나, 그 외 연구개발, 컨설팅, 아웃소싱 등의 사업서비스를 추가한 대기업들의 비중이 커서 국내에 비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업서비스 중에는 고용알선, 인력공급 등 인력아웃소싱 관련사업의 추가가 많았고(26社), 보안, 사무보조, 여행 등의 사업지원서비스(14社),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회계, 법무, 컨설팅)(11社) 順으로 많았음

< 일본 상장기업의 신규 목적사업 추가 현황(기업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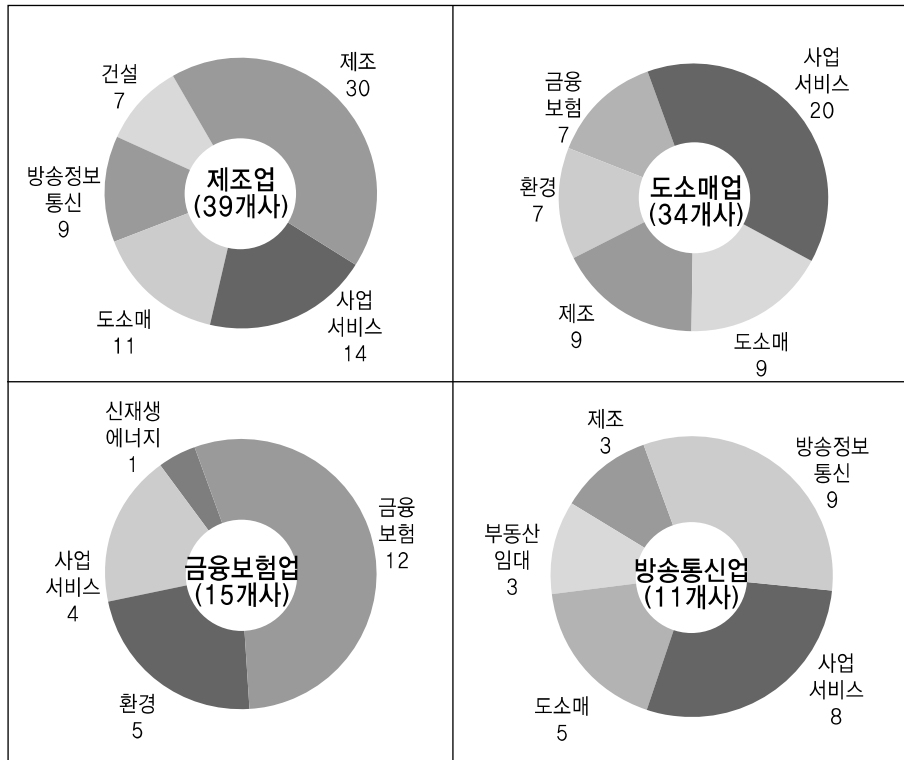


< 사업서비스 범위 >

- 연구개발, 법률, 회계, 세무, 시장조사, 컨설팅, 지주회사, 엔지니어링, 보안, 경비, 청소, 방제, 빌딩보수, 노동자 파견·직업 소개 등 인력공급 및 알선, 문서관리, 경리, 인사관리, 콜센터, 여행업, 예약대행, 신용조사 등

- 업종별로 나누어 신규사업 추가현황을 보면, 기존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경우 본업인 제조업 외에 사업서비스업과(14社) 도소매업(11社) 등을 추가한 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도 사업서비스업을 가장 많이 추가하였으며 (20社), 금융보험업종의 경우 금융 외에 환경(5社), 사업서비스(4社) 順으로 추가하였고, 방송통신업종도 사업서비스를 추가한 기업이 많았음(8社)

< 일본의 업종별 신규사업 추가 현황('09년) >



* 주 : 1개 기업이 신규 목적사업을 다수 기재한 경우가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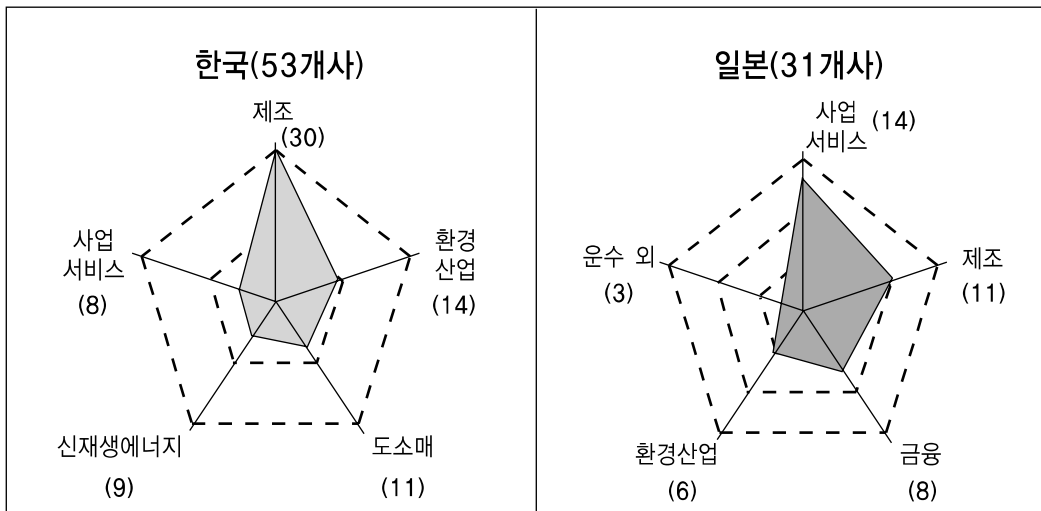
4. 한일 주요 대기업의 신사업 진출 현황

□ 한일 매출 상위 대기업들의 신사업 진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한국은 제조업, 일본은 사업서비스업의 추가가 많았음

* 코스피200지수 편입기업들과 니케이300지수 편입기업들 중 신규 사업을 추가한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코스피200 기업 중 53개사가 신규 사업을 추가하였고, 일본은 니케이300 기업 중 31개사가 신규사업을 추가하였음

- 한국 매출 상위 기업 중 제조업을 추가한 대기업은 30社, 환경산업 14社, 도소매 11社, 신재생에너지 9社 順으로 나타났고,
- 일본은 사업서비스 14社, 제조업 11社, 금융보험업 8社, 환경산업 6社, 운수업 3社 順으로 나타남

< 한일 매출 상위 대기업의 신규사업 추가 현황('09년) >



* 주 : 1개 기업이 신규 목적사업을 다수 기재한 경우가 있어 합계가 일치하지 않음

- 신규사업을 추가한 한일 상위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액 기준 주요 기업들의 신규사업 추가 현황을 보면,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추가가 많고 (LGD, LG화학, 삼성중, 한진해운), 관광업(현대차), 주유소업(신세계), 지재권 라이선스업(대우인터) 등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추가도 있었음
- 일본의 매출 상위 10대 기업들의 신규사업은 자원개발부터(큐슈전력), 전기·물공급(미츠비시상사, 샤프), 신재생에너지(신일본석유), 복지서비스(도쿄급행전철), 결혼정보서비스까지(AEON) 다양하게 나타남

< 한일 주요 대기업의 신규사업 추가 현황('09년) >

한국 주요 기업			일본 주요 기업		
기업명	'08매출 (억원)	신규 추가 목적사업명	기업명	'08매출 (억엔)	신규 추가 목적사업명
현대차	321,898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	신일본 석유	73,892	태양전지, 축전장치 제조
SK 네트웍스	218,974	고무수액 채취 및 관련 제품 제조·가공·판매	미츠비시 상사	61,464	상하수도 처리 및 물공급 사업, 증기 및 그외 에너지 공급사업
LG디스 플레이	158,652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제품 연구·개발·제조·판매	AEON (유통업체)	52,307	결혼상담 및 관혼상제에 관한 정보 제공·중개알선
LG화학	126,450	국내외 탄소배출권 매매 및 이에 수반되는 기술 용역업	이토츄 상사	34,190	금융상품 거래업
KT	117,848	부가통신, 콘텐츠 제작· 배급, 전자금융사업(선불 전자지급 등)	샤프	28,472	발전 및 전기의 공급 관련 업무
삼성 중공업	106,645	환경정화 및 복원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덴쓰 (광고회사)	18,871	주류·일용품 잡화 판매, 각종 미디어 사업
대우인터	100,458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의 라이선스업	야마다 전기	18,718	식음료품·담배·화장품 판매, 옥외광고 임대, 리폼 공사
한진해운	93,558	신재생에너지, 환경산업, 자원개발, 영농사업, 인력 파견업	큐슈전력	15,242	에너지자원 개발·매매· 수송, 콘크리트제품 생산· 판매
신세계	88,911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발전업	IHI (중공업)	13,880	압축기·송풍기·분리기 등 제조
현대상선	80,030	주차장 운영업	도쿄급행 전철	13,042	민간보육사업, 고령자주택· 시설 경영·간호서비스사업

5. 한일 비교 : 한국은 녹색산업, 일본은 사업서비스업에 관심

- 한국에서 많이 추가된 신재생에너지사업이나 환경사업의 경우,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신규 추가가 적었음(신재생 3社*, 환경 21社)
 - * 신일본석유(태양전지, 축전장치 등), 와이에이씨(기계제조업체, 태양전지부품 제조·판매), 코바야시요코(증권선물거래업체, 태양광발전시스템 판매)
- 이는 한국에서 최근 관심이 고조되는 녹색산업이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꾸준히 목적사업으로 추가되어 신규 추가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결과로 파악됨
- 반면, 사업서비스의 경우, 한국보다(24社) 일본에서 신규 추가가 3배 가까이 많았는데(69社), 이는 시장 확대 및 정책지원의 결과로 보임
 - 저출산, 고령화 등 일본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개호, 요양), 컨설팅 등 일본내 신규 서비스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 공공부문의 민간개방(각종 수납·상담업무, 공공직업소개사업, 교도소 경비 업무 등) 및 규제완화, 세제감면 등으로 인해 타업종간 인수합병이 촉진되는 등 일본의 서비스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일본 정부도 대대적인 ‘서비스 생산성제고 전략(’07)’을 발표하고 서비스 R&D 지원, 연구개발서비스 육성, 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수요창출을 위해 노력 중임
 - 한국의 경우, 서비스시장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마진률이 낮으며, 영세성, 차별 규제·세제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서비스산업에의 투자와 참여가 저조함
 - 특히, 고부가가치 업종인 의료, 법률, 세무, 회계, 건축사 등의 시장을 전문자격소지자가 독점하고 기업의 참여와 영업이 제한되고 있어 기업의 자본투자와 관심이 저조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사업서비스 중 인력아웃소싱 서비스의 경우 한국에서는 관심이 없는 데 반해(1社), 일본에서는 관심이 많은 점도(26社) 특기할 만함
 - 일본의 경우 경제침체 상황에서 비용절감과 수익개선을 위해 제조업과 도소매업, 운수업 등 노동집약형 업종을 중심으로 인력파견이나 고용 알선 등의 인력아웃소싱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임
 - 한국은 노사문화의 경직성과 요금규제, 파견제한 등 시장규제로 인해 고용 서비스시장이 발달하지 못해 인력아웃소싱의 신규참여가 적은 것으로 해석됨

※ <참고> 고용서비스시장 개요

- 분야 : 직업소개, 직업정보제공, 헤드헌팅, 근로자파견, 근로자공급, 도급 등
- 한국 : 등록제(직업소개사업), 가격규제(직업소개사업), 허가제(근로자 파견사업), 파견제한(32개 업종만 허용, 계약기간 2년) 등의 규제로 인해 민간고용서비스시장의 대형화·전문화에 한계, 종합서비스 제공에 애로
 - * 직업소개시장 : '07년 현재 7,632개 업체가 영업 중이나 평균 종사자수 2.4명으로 영세하고 취업알선이 건설 일용직, 간병인, 파출부 등 일용직에 집중되어 있음(90%)
 - * 인력파견시장 : 1조 2,000억원 규모로 추산, 국내 기업인 제니엘이 1만여 명의 인력을 공급 중이나(매출 1,700억원), 대부분 글로벌브랜드가 석권 중(템프스텝 코리아, 아데코코리아 등)
- 일본 : 직업소개사업 가격규제 완화('99년), 직업소개사업 허가 간소화, 근로자 파견사업 negative list化, 파견기간 연장('03), 제조업 현장 파견 허용('04년) 등 개혁조치 단행으로 고용서비스시장이 확대 되었으며, 특히 근로자파견 시장이 확대 중
 - * 파견인력 : 일본 140만명(2.7%)('08) vs 한국 13만명(0.8%)('09.3)
 - * 인력파견시장 : 5조 4천억엔 규모이며('07), 전체 1만여개 기업이 영업 중이며 상위 스태프서비스, 템프스텝, 아데코, 파소나, 리크루트, 맨파워 등은 모두 1조원 이상의 매출 기록 중

< 민간고용서비스 제도 한일 비교 >

	한국	일본
근로자 파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 • 파견기간 : 2년 • 대상 : 32개 업종(제조업 금지) • 계약만료 후 정규직 혹은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 • 파견기간 : 3년 (비서, 청소 26개 업종은 기간제한 없음) • 대상 : 제한 없음(제조현장 가능) (건설현장, 항만운송 등 일부 업종 금지) • 계약만료 후 정규직 혹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민간 직업 소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제 • 가격규제(노동부 가격 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 • 가격규제 없음

* 주 : 노동연구원('09), 「일본의 노동자파견법 개정 관련 주요 논점 및 전망」

- 향후 1,500억달러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유망산업인 탄소배출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일본 대형상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음
 - '09년도에 탄소배출권 관련사업을 정관에 포함한 기업비중은 한일 양국이 비슷한 수준이나(10개사 내외), 한국은 제조기업 중심으로 관심을 보인 반면 일본은 매매·중개가 주업인 세계적인 대형상사들이 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09년도 정기주총에서 정관에 탄소배출권 거래사업을 포함한 기업 例
 - 한국 : 한일건설, 한일시멘트, KT&G, 영창실업, 신성이앤지, LG화학
 - 일본 : 이토추 상사, 스미토모 상사, 미츠비시 상사, 도쿄 산업, 미즈이 물산
 - * 세계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 예상(세계은행) : 1,200억\$('08) → 1,500억\$('10)
 - ** 국가별 탄소배출량 비율('06) : 미국 20.3%, 중국 20%, 일본 4.3%, 한국 1.7%
-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협약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내 종합상사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한국은 한화, LG상사 정도가 '07년도 정관에 탄소배출권거래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유엔 승인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모델을 확보, 외국업체에 배출권 일부를 판매하는 등 탄소배출권 거래 사업에 나서고 있음

IV. 시사점

-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와 환경산업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음
 - 녹색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경쟁기업의 벤치마킹과 체계화된 경영전략·기술체계 수립 등 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인프라 구축, 기초기술투자, 규제완화 등 정부의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도 필수
 - 아울러 미래유망한 온실가스감축, 탄소배출권거래 등의 시장에 국내 대형 상사 및 글로벌 제조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진출 등이 요구
-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비하고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업종인 사업서비스 분야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과 참여, 정부의 지원 확대가 시급함
 -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기업이 상대적으로 사업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진출이 저조한데, 이는 미약한 수요기반과 더불어 제도·규제의 영향에도 기인하므로 규제 완화, R&D 지원 확대, 정부조달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
 - 제조업 등 다른 산업과 연계가 높은 회계·법무·컨설팅, 통신, 금융보험, 연구서비스, 아웃소싱서비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인력 확충 필요
- * 산업간 지식전파 효과 연구('09년, 한국은행)
 - 사업서비스의 지식전파 효과가 IT제조업에 버금갈 정도이고 지식집약적 사업서비스 (연구개발, 컴퓨터, 교육 및 헤드헌팅, 컨설팅, 광고)의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생산성제고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정부는 이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R&D지원 확대 및 사업서비스이용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함
 - 특히, 아웃소싱시장의 미성숙은 공급기업의 전문성 결여와 전문인력의 부족 때문이므로 많은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통한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규제완화 및 조세감면, 인력양성 지원 등을 조속 추진
- * 전문상담인력 등 민간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특화형 고용서비스(구인구직 알선, 고용정보제공 솔루션)개발 및 민간 위탁, 파견허용업종 확대(negative list 방식 운용) 등